

##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김 상 조\*

### I

『老稼齋燕行日記』(이하 『연행일기』로 줄임)는 숙종 38년(1712) 冬至使兼謝恩使 金昌集의 打角 즉 子弟軍官으로 북경에 다녀온 金昌業의 연행 기록이다. 김창업은 자는 大有, 호는 稼齋 또는 老稼齋, 본관은 안동으로 병자호란시 유명한 척화 대신이었던 淸陰 金尙憲은 그의 증조이고 아버지는 金壽恒이며, 문장으로 유명한 農巖 金昌協, 三淵 金昌翁 등이 형제다.

김창업은 어려서부터 문사에 능하고 시를 잘 지어 숙종 7년 24세 때에 진사가 되어 이름을 날렸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고 松溪에서 전장을 다스리며 일생을 지내오자 하여 스스로 가재라고 호하였다. 이러한 그를 金祖淳은 일찍이 ‘逸民’이라고 한 바 있다.<sup>1)</sup> 특히 그는 큰형 김창집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의 막내 아들 信謙이 벼슬에 나가는 것까지 막았다. 경종 2년 신임사화가 일어나 창집이 변을 당하여 거제로 귀양을 가자 울분이 겹치고 신병이 악화되어 64세를 일기로 죽었다.<sup>2)</sup>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러한 그를 金祖淳은 일찍이 ‘逸民’이라고 한 바 있다. 『老稼齋集序』, 『韓國文集叢刊』 175, 4면. 嗚呼 先生我東之逸民也

2) 李章佑, 「연행일기 해제」,

주지하다시피 김상헌은 병자호란 당시 왕이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다가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서 항복을 하자 끝내는 청나라에 잡혀가기도 한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북벌론의 핵심에 그가 있으며 그의 집안이 자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헌의 증손인 노가재가 연행사를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와서 쓴 연행록은 북벌론자의 연행록이라는 점에서부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연행일기』는 홍대용이나 박지원의 연행에 교과서적인 안내서<sup>3)</sup>라는 평을 들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열하일기』가 많은 연행록 중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과 달리 『노가재연행일기』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지적 검토에서부터 연행의 역사적 흐름과 자자층에 대한 검토, 대청인식, 글쓰기의 방식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한 논문이 나와 있다.<sup>4)</sup>

## II

척화론과 북벌론의 핵심에 자리한 청음의 후손인 노가재는 중국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으며, 그때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임진년 6월 23일 정에서 큰 형님이 동지사겸사은사가 되었다. 이때 큰 형님은 큰 병이 막 나았기 때문에 자제 중 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형편이었으

3)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語文論文』 2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4) 주요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아리, '『노가재연행일기』의 글쓰기 방식', 『韓國漢文學研究』 23집, 동연구회, 2000

김현미 '18세기 전반 연행의 사적 흐름과 연행록의 자자층 시고' 『韓國古典研究』 8집, 동연구회, 2002

박지선, 앞의 글

\_\_\_\_\_, '『노가재연행일기』의 서지적 고찰', 『어문논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이경자, '老稼齋燕行日記 小考', 『한성어문학』, 한성대어문학부, 1984

全美子, '金昌業 『燕行日記』 中的中國形象' 『中國研究』 29집.

며 또 우리 형제들은 모두 중국을 한번 보고 싶어 하였다. 이에 셋째 형이 가려고 하다가 그만두자 내가 대신 타각의 명목으로 가게 되었다. 조롱과 비난이 일시에 일어났고 여러 친구들이 만류하였다. 나는 농으로 “공자께서 미복으로 송을 지나신 것은 오늘에도 통하는 일인데 어찌 나만 안 되는가” 하니 듣는 이가 모두 웃었다.<sup>5)</sup>

노가재가 중국에 가게 된 연유는 그의 큰형인 몽와 김창집이 사신으로 뽑혀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김창집이 큰 병을 앓고 난 뒤라 자제 중에 수발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노가재 형제들이 모두 중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하였으나 주위의 반응은 ‘조롱과 비난이 일시에 일어났고 여러 친구들이 만류’한 것이다. 척화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상헌의 후손인 노가재의 이러한 고백은 꽤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가 중국에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문명의 본고장에서 중화 문물을 (잔존하는 것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중국이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나름대로 청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측면이 모두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그는 중국에 대하여 비교적 편견이 없이 관찰하였다.

노가재의 연행일기 저술 태도는 그의 연행이 타각으로 가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가 연행록을 저술하는 태도는 마치 정사가 사신의 업무의 하나로 행정을 기록하는 것처럼 진지하다. 그의 연행 기록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일기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가재는 연행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일기체가 아닌 별도의 형식으로 「一行人馬渡江數」에서사행 인원의

5) 『국역연행록선집』 IV 十五面, 壬辰六月二十三日政 伯氏爲冬至兼謝恩使 時伯氏大兵新廢 子弟一人宜隨往 且吾兄弟皆欲一見中國 於是叔氏欲行已而止 余乃代之以打角啓下 一時譏謗譁然 親舊多勸止 余談諸曰 孔子微服過宋 爲今世通行之義 吾何獨不可乎 聞者皆笑 (이 글에서 인용을 하고 그 원문을 밝히는 경우에는 앞의 책 뒷부분의 원문부분 면수만을, 원문을 밝힐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국역 부분의 면수만을 괄호 안에 밝히기로 한다.)

규모와 역할을, 「方物歲幣式」에서 예물의 규모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鳳城瀋陽山海關北京所用禮單人情都合數」항을 두어 가는 길에 필요한 비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인) 예단과 인정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경에 도착하여 청 조정으로부터 조선 사신에게 내리는 물목을 「入京下程」란에 기록하고, 「表咨文呈納」, 「鴻臚寺演儀」, 「朝參儀」, 「賞回物目」, 「上馬宴」에서는 사신의 임무 수행을 눈으로 보듯이 묘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山川風俗總錄」, 「往來總錄」에서 오가는 길 주변의 자연 풍광, 풍속과 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놓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청나라가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기록되어 있는 『官塔通錄』을 구하여 崔德中과 柳山算을 시켜 계산을 하게 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285-287면) 이것은 타각이 아니라 정사나 부사 최하 서장관 정도의 직품을 가지고 간 사람의 보고서에나 기록할 만한 내용이다. 노가재는 「왕래총록」의 뒤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중국에 가게 되었는지를 서술해 놓고 있어서 여기에서야 비로소 기록자가 그러한 정식 사신행차의 주요 임무자가 아니라 타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다.

노가재는 『연행일기』에서 가능한 한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견문한 것만을 충실히 기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청의 실상을 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길옆에는 벽돌 가마가 있는데 옆에 아직 굽지 않은 벽돌과 수수깡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물어보니 삼하성을 수리하느라고 관에서 구운 것이라고 했다. 가마 만드는 법은 위 아래가 다 네모났고 한 면이 두어 발쫓 되며 높이 또한 그와 같았다. 앞면에 불문이 나 있는데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으며 가마 하나에 쌓이는 수는 줄잡아도 수만 장은 되었다.<sup>6)</sup>

이것은 노가재가 길가에서 본 벽돌 가마의 모습을 서술해 놓은 것이다.

6) 『연행일기』 六八면. 路傍有甃窰 土坯黍幹 堆積如山 問之爲修三河城 自官塑造云 其窰制上下皆方 一面可數丈 而高亦如之 前面開火門 人可立而出入 一窰所積 計不下數萬張矣

그는 가마 옆에 수숫대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sup>7)</sup> 이것을 연암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연암은 가마의 재료와 외관, 만드는 법도 등을 서술하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의 가마는 곧바로 누운 부뚜막이지 가마가 아니!’<sup>8)</sup>라고 혹평하고, 중국의 가마와 비교하면서 중국의 가마 더 나가 우수한 여러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sup>9)</sup> 사실 이러한 비교는 많은 무리가 있다.<sup>10)</sup> 노가재는 이와 달리 그저 본 대로 보고할 뿐이다.<sup>11)</sup>

노가재의 이러한 자세는 그러나 다른 문체 예를 들면 역관 문체와 같은 데 이르게 되면 전혀 달라진다. 노가재는 일개 타각에 불과하지만 역관과 난두의 횡포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한다. 그가 본 역관 문체는 하나는 역관들이 한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역관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가재가 역관의 한어 실력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금석산을 지나면서이다. 이때 조선 시행은 세 명의 청나라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의복과 모자가 다 떨어지고 얼굴이 누추하여 처음 볼 때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들은 역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담배를 얻어 피우며 약간의 수작을 하였는데 이때 그들과의 문답은 이유랑이 했고 수역인 박동화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아서 노가재는 ‘이상하다’는 의심을 표시하였다. (65-66면)

7) 옆에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뭇감으로 생각했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물론 있다. 그러나 수숫대를 가마의 뭇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가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8) 『연암집』 152면. 我窯直臥竈 非窯也

9) 주 8)과 같은 곳.

10) 김상조, 「박지원과 메카트니의 중국인식 비교」-熱河日記와 中國訪問使節日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5집,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04. 12

11) 이러한 태도는 가마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북경 저자나 북경성 태학과 순천 부학의 구경을 하면서도 놀라우리만치 냉정하게 있는 대로의 풍경을 서술할 뿐(『연행일기』 1월 19일조, 2월 1일조, 2월 10일, 2월 13일조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자신의 견해는 거의 내비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가재의 중국 관찰은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 사신은 도착한지 20일이 되었으나 표문을 올리지도 못하고 방물과 세폐도 바치지 못하였다. 선달 22일부터 정월 20일까지 관청이 휴무라는 것을 몰랐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부에서 方物移準 문서와 歲幣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물건이 다른 이유를 물었으나 역관이 한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는 수역이 사신에게 ‘예부가 이준문서에 관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장차 순조롭지 못할 것 같으니 모름지기 뇌물을 많이 주어야 무사히 될 듯하다’고 하였다. 사신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으나 서장관이 문서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역에게 잘못을 추궁하였으나 수역은 굽히지 않았다. 사신이 서장관의 말을 듣고 문서를 가져오게 하여 살펴보았으나 잘못된 것이 없었다. 이 사건은 수역의 통역이 아니라 조선 사신이 그 곡절을 글로 설명을 하여 해결하였다. (257면) 이 일을 옆에서 보면서 노가재는 역관 문제를 심각하게 말한다.

역관 중에는 한어를 못하는 자가 그 중 한두 사람 있고 조금 낫다고 하는 자도 저들과 수작을 하는 것을 보면 옆에 두세 마디도 분명하지 않다. 이쪽에서 말하는 바를 저쪽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바를 이쪽에서 역시 못 알아듣으니 보기에 갑갑하다. 양국의 사정을 오직 통관과 역관에게 의지하여 통하고 있는데 역관은 이 모양이고 통관 또한 우리나라 말에 능하지 못하다. 무릇 언어란 비록 갖추어 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몇 마디 안 되는 말을 골라서 하니 그 곡절이 번거로운 일에 이르면 피차간에 어찌 마음이 통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만약 어떤 일이 있으면 이치를 따져가며 다룰 줄 모르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오직 뇌물 주기에만 힘을 쓰니 어찌 이같이 한심한 일이 있겠는가.<sup>12)</sup>

12) 『연행일기』 八八-八九면. 譯官無通漢語者 其中一二人 號爲稍勝 而觀其與使人酬酌者 爲十言無二三言分明 此所言 則彼不解聽 彼所言 則此亦不解聽 見之可悶 兩國之情 只憑通官譯官通之 而譯官既如此 通官亦不能爲我國言 凡言語 雖備說 尙難使人解聽 今以數少之語 擇而爲之 其於曲折頗多之事 彼此豈有通情之理 是以若有一事 則不能折理爭之 無論大小 惟務行賂 寧有如許寒心者乎

사실 역관의 한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노가재가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가재가 현장에서 본 실상은 낫다고 하는 자도 옆에 두세 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가 본 역관들은 해마다 청나라에 들락거리면서도 장삿속을 차리는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를 포함한 연행 행차에 수역을 담당했던 朴東和도 역시 '한어를 전혀 모르고 또 문자에도 밝지 못하여 일을 당하면 혼미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271면)

다른 하나는 난두배들과의 결탁이다. 난두란 연행사의 짐을 독점적으로 운송하는 자를 일컫는다. 애초에 연행사들은 봉성 요동 등지에서 수레품을 파는 자들을 고용하여 물자를 날랐다. 그런데 1689년 (숙종 15) 요동 사람 胡嘉珮 등 12인이 난두를 설치할 것을 청하고 연행사의 물자 운반을 독점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들은 독점권을 믿고 샅을 마음대로 정하고 물건을 훔치는 등 그 폐해가 자심하였다.<sup>13)</sup> 그런데 역관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횡포를 부린 것이다.

역관들이 와서 말하기를 '난두의 송사는 7-8할이 위태롭습니다.' 하니 일행 중 은을 선불한 자는 모두 근심하는 빛을 띠었는데, 수역만은 근심하지 않았다. 책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난두들은 품삯을 미리 주기를 요구하였다. 역관배를 환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간청하였으니 분명 심양의 송사관에게 뇌물을 쓰기 위한 것이다. 행중의 의견은 모두 '근래에 와서 우리가 장사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난두 탓이다. (송사에서) 난두의 패배가 우리에게는 큰 다행이다. 오히려 힘을 합하여 그들을 물리치지 못할망정 어찌해서 은을 지급하여 그들의 형편을 돕는가? 또 그들의 기색이 전일과는 크게 다르니 기세가 꺾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은을 주었다가 그들이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 은을 추심할 수 없다. 마땅히 기다렸다가 심양에 이르러 형편을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하였다. 이 일의 이해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데 수역만이 미리 줄 것을 힘써 주장하며 다 주라고 일행을 위협하였다. 오직 이유량 최태상 장원의 흥만운 네 사람만이 이

13) 『증보문헌비고』 下, (東國文化社 영인본) 44면. 『연행일기』 67면.

의를 말하고 나머지는 휩쓸려 따랐으니 통분한 일이다 뒤에 들었는데 그 액수가 모두 만여 냥에 되었다고 한다.<sup>14)</sup>

여기에서 말하는 송사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난두들이 어떤 송사에 연루되어 있으며 수역이 그들과 짜고 국익보다는 난두배들(그리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노가재는 이 일을 통분하다고 흥분하여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사신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한 예를 보면 의주 쇠마구인들이 난두들의 행위를 미워하여 사행이 떠난 뒤에 형부 관리에게 난두를 파면해주시기를 일제히 호소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 기미를 난두가 알아차리고 수역을 시켜 남몰래 방해한다. 그들은 사신 행차에 수행한 쇠마구인들이 청나라에서 금지하는 물건들을 사다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단련사(관직명. 주로 중국에 가는 사신을 수행하여 하인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거나 중국 사신의 환영 환송에 수행하여 호송하는 일을 맡는데 수령·군관 등이 이에 임명된다.)가 심양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90면) 그리고는 며칠 뒤 수역은 친절하게 즉 단련사는 바로 떠났으나 쇠마구인들이 금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책문을 나올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뒷일까지 걱정을 해준다. 보다 못한 노가재가 나서서 그의 입을 막는 일까지 있었다. (115면) 노가재는 이밖에도 역관들 중에는 난두들과 결탁하여 조선 사신단의 정보를 그들에게 빼주는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고 지적하였다. (79-80면)

14) 『연행일기』 三二면. 譯官輩來言 攔頭之訟 七八分危殆 行中先給銀者有憂色 而首譯獨不憂 自入柵門 攔頭輩要預得雇價銀 款待譯輩 朝暮懇請 蓋爲行賂於瀋陽訟官也 行中諸議 皆以爲近來買賣之失利 專由於攔頭 攔頭之敗 於我爲大幸 縱不能並力擠之 奈何給銀 而助其勢 且其氣色大異前日 勢屈可知矣 倘與銀 而訟不勝 則其銀不可推宜且挾 到瀋陽觀勢處之方 爲萬全云 此事利害 雖三尺童子可知 而獨首譯力主預贈之議 驅脅一行盡贈 惟李惟亮 崔台祥張遠翼洪萬雲四人立異 餘皆靡然從之 可痛 其後聞其數 則共爲萬餘兩云



III

이번에는 노가재의 중국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아들 낳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는데  
 문을 나서는 것은 어찌하여 이렇게 늦었는고  
 오래된 께짜에서 칼을 챙겨 들고  
 칠척의 쇠약한 몸으로 길을 떠나노라  
 장사가 할 일은 집을 지키는 것이니  
 어려서부터 북방을 지키기를 원했다  
 이로부터 온 세상이 비웃더라도  
 만리 밖 유주 연주 두루 보고 오리라<sup>15)</sup>

노가재는 중국에 다녀온 감회를 읊은 시를 모아 『燕行樵麓錄』이라는 시집을 남겼는데 위의 시는 이 『연행훈지록』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로 그가 중국에 가는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하여 북쪽 오랑캐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였음을 토로한다. 그런 그가 중국에 가게 되자 병에서 갓 일어난 형이 중국까지 먼 길을 가게 되어 그의 수발을 위해서 수행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비웃는다. 앞에서 ‘조롱과 비난이 그것도 일시에 일어났다’고 한 것과 같은 것으로 허위적인 북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분위기라고 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주 연주 즉 중국을 두루 보고 오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밝히는 것이다.

사람들 따라 요수를 건너  
 칼을 차고 연주 운주로 가노라.

15) 『문집총간』 101면 ‘次伯氏辭家韻。自幸懸弧計不違 出門何用護依依 百年古匣防身劍 七尺衰軀短後衣 壯士寧能守蓬戶 兒時固願戍金微 從他舉世皆嘲笑 萬里幽燕遍踏歸

굴속에서 선비가 없음을 슬퍼하니  
 오두막에서 오랑캐 임금이 있는 것 부끄럽다  
 백년을 옷깃을 왼쪽으로 여뻐어도  
 친하는 여전히 옛 문화가 있으니  
 언제나 오랑캐 풍속이 변하여  
 중원이 가죽옷을 벗을 것인가!6)

노가재가 심양을 떠나 연주 운주 즉 북경쪽으로 가면서 본 중국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 다시 말하여 오랑캐 세상이 된지 백년이나 된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개 높은 선비가 없는 것을 슬퍼하고 오랑캐 임금이 친하를 다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중국이 언제쯤이나 오랑캐 세상이 끝날 것인지 탄식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행훈지록」에는 ‘荊卿’ ‘劍’ ‘腥’ 또는 ‘腥膻’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나온다. 그의 감정으로는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에서 청은 나그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 (189면) 즉 노가재는 비난과 조롱을 하는 당시의 풍조와 결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가재는 龍灣에서 병자호란의 수치를 돌이키면서 “포수 일천명만 얻을 수 있다면 삼강을 가로 막고 오랑캐들을 죽이리라.”고 노래하는가 하면17) 북경에서 제갈량, 악비 그리고 문천상을 모신 삼충사를 어렵게 찾아가 참배하면서 감개무량해 하고 묘우가 황량한 것을 상심하였다. (237면)

하루 저녁 하늘이 함부로 한의 깃발을 뽑아버리니  
 봉화 경보가 늦게야 올랐네.  
 그때에 원 경략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처럼 온 요동을 잃었으랴!18)

16) 『문집총간』 105면. ‘次伯氏孤家子述懷韻。隨人渡遼水 携劍向燕雲 俠窟悲無土 窮廬恥有君 百年猶左衽 四海尙同文 何日異風變 中原脫鹿裙

17) 위의 책 103면, ‘龍灣雜詠和息庵 其五’. 龍灣城池昔壯哉 丙子之事寧不愧 安得砲手只一千 把截三江殺胡騎나

여기에서 원경략은 명말의 명장 袁崇煥이다. 그는 寧遠城 전투에서 그간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후금군을 대패시켰다. 특히 이 싸움에서 태조 누르하치가 중상을 입어 끝내 사망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가 요동을 지키는 동안은 후금이 쉽사리 진격하지 못하였다. 그는 청 태종의 반간계로 죽임을 당하였다.<sup>19)</sup> 『연행일기』에서도 이에 대하여 “명나라 조정이 이미 廣寧을 잃은 뒤의 일이다. 원승환이 이 성을 지켰는데 건노가 여러 번 공격해 왔으나 번번히 패전하자 나중에는 명나라 조정에 첩자를 보내 모문룡으로 하여금 그를 당으로 몰아 죽게 했으므로 뜻있는 자는 지금까지도 서러워한다.”고 하였다. (123면)<sup>20)</sup> 노가재는 이러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명 조정이 후금의 반간계에 걸려 원승환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찌 온 요동을 잃었’겠는가 하고 아쉬워하는 심정을 노골적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은 『연행일기』 곳곳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나타난다. ‘산마루에 올라 서북쪽을 바라보니 호국의 산들이 중첩하여 끝이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77면) ‘요동으로부터 심양에 이르기까지 허물어져 겨우 터만 남고 가끔 아름답리 나무가 서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몽클해지기도 하였다.’ (86면) 그런가 하면 금주를 지나면서는 ‘병화를 입은 지 이미 70년이 지났는데 민물이 모두 조폐한 채 지금껏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비참했던 당시의 도록상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쓰렸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117면) 즉 그는 명과 청의 교체를 가슴아파 하는 것이다.

명과 청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인식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한족과 만주족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데까지 이른다. 권1의 「산천풍속총록」에서는

18) 위의 책 105면, ‘次伯氏歷大小黃旗堡及白旗堡次雲沙韻. 一夕天驕拔漢旗 烟臺警報入關遲 當時不殺袁經略 縱失全遼詎至斯

19) 『明史』 권 259, 「袁崇煥」

20) 이 기록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다. 『명사』 「원승환전」에 따르면 원승환은 모문룡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문룡이 원승환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그러니까 『연행일기』의 기록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말 그대로 산천과 풍속을 총괄적으로 논하는데 모든 면에서 한족과 만주족으로 나누어 말한다. 그에게 있어 청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중국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가재는 감정을 앞세워 객관적인 자세를 잃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그는 “청인은 생김새는 좋지만 글은 조금 밖에 하지 못한다. 글을 조금 했기 때문에 순박한 사람이 많다. 한인은 이와 반대이며, 남방 사람은 더욱 경박하고 교활하다”<sup>21)</sup>고 주저하지 않고 본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청 적대감이 각도를 달리하면 우리의 의상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연행일기』에는 중국인이 우리의 의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노가재가 집요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상당히 나타난다. 노가재는 만나는 어린 아이로부터 60세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에게 의관이 어떠한지, 우습지 않느냐 또는 우리처럼 왜 머리를 기르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을 한다. (104면, 105면, 110-112면, 119면, 144면, 153면, 186면, 277면, 441-442면) 노가재는 “의관 문물이 모두 중국을 모방하기 때문에 소중화라는 칭호가 있다” (112면)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옛날의 관복 제도나 풍속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도 없어서는 안된다고까지 말한다. (436면)<sup>22)</sup>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연행일기』에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연행훈지록』에서처럼 노골적이고 감정적이지 않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오삼계가 관문을 열어 청병을 받아들인 것을 죄로 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때 황성이 이미 함락되고 황제는 순사하여 천하는 벌써 망했다. 삼계 홀로 관문을 지키려 한들 되었겠는가! 그때의 형세는 이자성에게 깨지지 않았으면 청병에게 깨어졌을 터이니 당시의 형세로 보아 삼계의 주장 타은 아니다. 또 이자성의 죄는 명나라의 신하된 자면 누

21) 『연행일기』一一면, 淸人貌豐偉 爲人少文 少文故淳實者多 漢人反是 南方人尤輕薄狡詐

22) 노가재가 이처럼 의관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하여 이경자는 ‘일종의 의관견시 콤플렉스’라고 한 바 있다. (이경자, 앞의 글)

구나 마땅히 그를 불공대천의 원수로 토죄해야 했다. 삼계는 기왕 깨질 관을 포기하고 군부의 원수를 갚았으니 임시변통의 의는 지켰다 할 수 있다. 만일 삼계가 일체의 의를 지켜 청병과 힘을 합하지 아니했다라면 끝내는 이자성에게 패했을 것이며 청병은 자력으로 산해관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천하에 무슨 이로움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아버지 오양이 죽을 때 따라 죽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이것은 삼계의 죄다. 하지만 30년을 은인자중하여 백두로 거사하여 천하를 진동시켰으니 그 행위 또한 장하다. 그런데 아깝게도 대명의 왕족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여 천하 사람의 소망을 잃고 스스로 왕을 참칭하다가 끝내는 패망하였으니 그가 이름을 망치고 절의를 잃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sup>23)</sup>

이것은 노가재의 오삼계에 대한 변호다. 주지하다시피 오삼계는 난공불락의 산해관을 열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중국 천하가 오랑캐의 지배를 받도록 한 인물이다.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노가재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랐다. 그는 당시의 명나라는 이자성에 의해서든 청에 의해서든 어차피 망할 나라로 보았다. 그리고 이자성에 의하여 망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청군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청의 중국 지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오삼계가 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청병이 자력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삼계가 청병과 손을 잡고 명나라 황제의 원수를 갚은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군부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자성에게 패했다면 천하에 아무런 이로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아버지가 순사할 때 따라 죽지 않고 후일 이른바 반청복명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왕을 참칭한 사실

23) 『연행일기』 五二면. 世或以三桂開關納清兵爲罪 此不然也 當是時 皇城已陷 帝殉社稷 天下亡矣 三桂雖欲獨保關門 得乎 其勢不破於自成 則破於清兵 不由三桂主張也 且自成之罪 爲大明臣子者 所宜不反兵而討者也 三桂棄必破之關 而復君父之讐 倉卒處義 可謂得矣 若使三桂徒守一切之義 不與清兵致力 則必竟見破於自成 而清兵亦自入關矣 天下事亦何益哉 但襄死而三桂死 則善矣 而不能死 此三桂罪也 然隱忍三十年 白首舉事 使天下震動 其所爲亦壯哉 而惜乎不立大明宗室 失天下望 身自僭號 竟致敗滅 喪名失節 無足可論

에 대해서 비난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으로 노가재는 祖大壽의 항복에 대해서도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조대수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 祖承訓의 아들로 금주 싸움에서 청에 항복한 인물이다. 그는 ‘금주를 대수 형제에게 맡겨 오랑캐를 막게 하였으면서도 포위된 채 해를 넘겨도 끝내 구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나라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군사를 버린 책임은 마땅히 저야 하겠지만 대수가 항복한 것은 그다지 책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468-469면)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일반적인 것과는 많이 다르다. 노가재는 『연행훈지록』에서처럼 여전히 격렬한 반청의식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청에 대한 의식을 돌이켜보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에 가서 청나라의 실상을 목도하면서 명의 멸망과 오랑캐지만 청의 중국 지배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오삼계나 조대수처럼 청에 협조 또는 항복했다는 비난을 받던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을 변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24)</sup>

## IV

그렇다면 노가재가 본 당시 청나라의 현실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황제에 대한 평부터 보면 노가재는 강희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한다.

예전에 들으니 황제는 창춘원에 이궁을 15곳이나 지어놓고 북경 및 14성

24) 노가재의 대청 의식이 燕行을 통하여 변모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박지선, 앞의 글) 살펴본 바와 같이 『연행훈지록』에서는 여전히 대명의리와 반청적인 의식이 변모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의 미녀들을 모아두고 궁실제도와 의복 음식 기명을 모두 그곳 풍속에 따라 마련하고 황제가 그 가운데서 노닌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소문과 크게 달랐다. 창춘원은 남북이 2백여 보, 동서가 백여 보뿐인데 그 안에 어찌 15개의 이궁을 설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삼면을 둘러보았지만 끝내 처마 끝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높고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문과 담을 보니 제도가 소박하여 시골집이나 다름없다. 진실로 놀기를 일삼고 사치에 바쁘다면 태액 오룡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여기에 거처하겠는가.<sup>25)</sup>

그는 청나라 황제의 검소함을 매우 칭찬한다. 들은 바와 달리 창춘원도 시골집이나 다름없는 소박하다는 것이다. 창춘원은 황제가 쉬는 곳이었다. 그런 곳까지 이처럼 소박하다면 다른 곳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가재가 강희제를 이처럼 긍정적으로 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실 강희제에 대한 노가재의 평은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검소하다는 칭찬을 하고 나서 바로 “검소한 덕은 비록 가상하다 하겠으나 너무 지나치게 검소함은 인색함에 가까워, 관청이 허물어지면 관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치게 하였다”고 비판한다. (362면) 그러나 관리들에게 고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재를 털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억지다.

이것만이 아니다. 노가재는 강희제가 현명하기는 하지만 도타움이 부족하고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특히 통관의 말이라고 하면서 “간쟁을 듣기 싫어하여 곧은 신하가 조정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하니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의 도량이겠는가?”<sup>26)</sup> 하면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왕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을 하는가 하면(361면) 조선에 책을 보내면서 서문과 제목을 써주는 것은 문필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신

25) 『연행일기』 一一一면. 舊聞 皇帝於暢春苑 作離宮十五處 貯以北京及十四省美女 宮室制度及衣服飲食器皿 皆從其地風俗 而皇帝沈湎其中 今來見之 與所聞大異 暢春苑 南北二百餘步 東西百餘步 其內豈容寘十五處離宮乎 圍其三面 而從未見屋 覺其不高大可知 且觀其門與墻制度 朴野無異村莊 誠如事遊衍奢侈 則棄太液五龍之倚麗 而居乎此乎

26) 위와 같은 곳. 惡聞諫諍 峭直之臣 不容於朝 此豈君天下之量也

일행 중의 인물을 불러 활을 쏘게 하면서 자진도 활을 쏘는 것은 무예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먼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다 활을 쏘게 하면서 선물 하나 안 주는 것은 잘 한 일 같지는 않다.”고 하는 등 당연한 일까지도 부정적인 평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27)</sup>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황제에 대한 노가재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전주 오랑캐는 동이의 종족으로 성격이 본래 어질고 약하여 살인을 즐기지 않았으며 강희가 검약함으로 고생을 견디고 관대하고 간소한 규모로 상업을 억제하여 농업을 권장하며 재물을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며 5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였으니 태평을 이룩한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정치에 유술을 숭상하여 능히 공자와 주자를 높이며 몸소 효도를 닦고 적모를 잘 섬김에 이르러서는 비록 위의 효문왕이나 금나라의 옹왕에 비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다.<sup>28)</sup>

그는 강희가 몸소 검약을 실천하고 농업을 장려하였으며 유학을 숭상한 것 등을 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태평을 이룩한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은 강희 황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가재가 보기에 이러한 황제 밑의 관리들도 청렴하였다.

27) 사실 황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책봉했다가 파기하고 다시 책봉했다가 파기를 한 변덕스러운 황태자 폐위 사건을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노가재는 이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전말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다. (66면, 79면, 154면, 194-195면, 272면) 그러나 이에 대한 견해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물론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조심해서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가재는 『연행일기』를 저술하면서 조심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었다.

28) 위와 같은 곳. 且建夷東夷之種 性本仁弱 不嗜殺人 而以康熙之儉約守汗 寬簡之規模 抑商賈而勸農 節財用以愛民 其享五十年 太平宜矣 至若治尚儒術 而能尊孔朱 躬修孝道 而善事嫡母 則惟比於魏孝文金主雍 無愧矣



유비장이 가진 채찍은 힘줄로 속을 넣고 등나무 줄기로 겉을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었다. 호부 낭중이 이것을 보고서 매우 갖고 싶어 하는 눈치였으나 끝내 말은 않더라고 하였다. 일찍이 휴암의 연행일기를 보니 '요동에 이르러 아문이 뇌물을 요구하여 20여 일을 지체하고 떠나지 못하였다. 한 유격장군이라는 자는 벼룩들로 채 이마를 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역관들을 위협 재물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명나라 말기에 탐관 풍조가 그러하였던 것이다. 오늘 일을 보니 더욱 한탄스러웠다.<sup>29)</sup>

노가재는 사소한 채찍 하나에서 청의 관리가 욕심을 억제하는 태도를 보고 감탄하였다. 그러면서 명나라 시절 한 유격장군이 벼루 하나를 탐내서 스스로 이마를 깨 피를 흘리기까지 하여 조선 사신이 20여 일이나 길을 떠나지 못했다는 기록을 생각해내면서 명나라의 관리와 다른 점을 밝힌다.

이러한 사소한 일 말고도 노가재는 “일찍이 듣기로 이 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근래에는 기강이 없어 모든 일을 다 뇌물로써 해결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와서 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이 생기면 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따지지 못하고 뇌물이나 주려고 하는 조선 사신 일행을 비난하였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밍글고 통이 크며 잘못된 일은 비록 아주 능숙한 구변으로 꾸며댄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며 옳은 일이라면 처음에는 비록 오인했더라도 이치로 따지면 곧 의혹을 푼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내린다. (259면)

이와 같은 황제와 관리가 다스리는 청나라의 실상을 노가재는 매우 꼼꼼하게 관찰하였다. 우선 그가 본 중국은 궁궐은 장려하고 정제함이 정말 황제의 거처다웠다. (219면) 성중의 대로와 골목길 및 인가의 처마 밖에는

29) 『연행일기』 三二 - 三三면. 柳所持鞭 以筋爲心 而藤經其外 卽我國所造也 郎中來見 頗有愛意 而終無所言云 曾見休庵燕行日記 到遼東 爲衙門徵求賂物 留二十餘日 不得行 有一遊擊將軍者 自以硯石打額出血 恐譯輩索貨 蓋明末貪風至如此 視今日事 尤可歎也

모두 하수도를 설치하여 온 성의 물이 다 이곳으로 나가고, 성중의 큰 도랑 이외에는 하수구가 없었으며, 또 거위 오리 양 돼지 따위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길에는 더러운 곳이 없었다. (332면) 밀가루 치는 기계는 잠깐 사이에 두어 곡을 뺄 수 있고 (101면), 하루에 백 근의 목화씨를 뽑아낼 수 있는 씨아를 가지고 씨를 빼며 (474면) 하루에 백여 근에 이르는 솜을 탈 수 있는 활로 솜을 땀다. 갑문을 설치하여 배가 도달하지 못할 곳이 없게 하는 (237-238면) 등 '한 사람이 하는 분량이 우리나라의 열 사람 몫이 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92면)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이밖에도 노가재는 똥 줍는 모습을 꼼꼼하게 서술하고 있다. (251-252면)<sup>30)</sup>

특히 그의 기계에 대한 관찰은 실학자 연암의 그것에 못지않게 꼼꼼하였다.

한 사람이 서서 타는데 활의 길이가 4-5척인데 줄을 활 허리에 묶어 들보에 달아놓고 왼손으로 그것을 잡고 오른손으로 작은 방망이를 들고 활줄을 치면 목화가 타지는데 온 방안에 눈이 오는 것 같아서 잠시 옆에 서있으니 옷과 모자가 하얗게 되었다. 하루에 타는 양을 물었더니 많으면 백여 근에 이른다고 한다. 활줄은 양 창자로 하여 질겨서 끊어지지 않으며 거기에다 쇠고리를 꿰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였다. 이것은 활줄에 솜이 영겨붙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sup>31)</sup>

30) 이것은 그와 함께 중국에 갔던 최덕중의 『연행록』이나 훗날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도 역시 발견되는 것이다. 흔히 『열하일기』의 이 부분을 박지원의 실학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많이 설명되지만 실학자로 평가받지 않는 노가재의 경우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조선에서는 거의 해마다 ..... 흉년이 들어서 정양 정부는 구휼에 골몰하고 있었다. .... 빈발했던 민란도 흉년으로 고향을 떠난 유랑민들이 결집하여 일으킨 것이다. 이런 당면한 현실문제를 생각할 때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예상외로 가까운 데 있음을 발견한 김창업의 기쁨은 컸을 것이다”고 하면서 “김창업의 똥무더기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박지선 앞의 글) 이것은 실학자 박지원의 실학적 자각으로 보는 시각과는 다른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31) 『열하일기』 三二면. 一人立而彈之 其弓長可四五尺 以繩繫弓腰 懸於屋樑 而用左手持之 右手持小槌 推其弦 綿花彈起 一屋內如雪 乍立其傍 衣帽盡白 問一日所彈

이러한 기계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사는 '집들과 시가가 자못 번성하였고, 처음 보는 것이 많아서 눈이 현란'하였으며(68면) '인물이 번성하고' (81면) 요동은 '길은 거마들로 붐비고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에는 기와 방이 서로 비치고 백화가 산적해 있어서 자신으로서는 처음 보는 것들이라 마치 촌사람이 종로 거리에 처음 온 듯하였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83면) 심양은 더하여 토성 안에만 해도 점방들이 시가의 좌우에 즐비하였으며, 성안은 요동보다 10배나 번성하였다. (89면) '승문문 좌우의 저자는 극히 흥성하고 거마가 문을 메워 겨우 들어가는' 정도였다. (238면)

청 정부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은 토지세는 畝당 4푼 4리, 丁 즉 인두세는 대략 한 사람마다 은 4전 2푼 9리씩을 거둔다' 이것은 노가재가 생각하기에 '부담이 매우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87면) 노가재가 보기에 태평성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청나라가 몽고족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노가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다.

몽고인들의 천막을 헤아려보니 크고 작은 것이 각기 30여 개소이고 머물러 있는 호인은 도합 40여 인이었다. 또 그 북변에 있는 자들도 역시 많다고 한다. 통관배들은 말하기를 "몽고인들은 3월이 되도록 머물다가 황제의 생일이 지나야 돌아가는데 하루에 제공하는 양고기와 술, 양식과 목초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니 이와 같이 오랫동안 머물러 두는 뜻을 모르겠다.<sup>32)</sup>

노가재는 중국에 몽고족이 매우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오래 머물러 청나라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多至百餘斤云 其弦用羊腸爲之 取其韌而難斷 貫以鐵環 使遊離往來 是防綿花纏結也  
32) 『연행일기』 八五 면, 數蒙古帳 大小各三十餘所 居胡合四百餘人 又在其北邊者亦多云 通官輩言 蒙古當留至三月 過皇帝生日而歸 一日所供羊酒糧草 不可勝計 而久留如此 其意有不可知

이밖에도 노가재는 황제의 행차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복장이 낡은 것도 있고 황실의 궁실과 원림을 잘 수리하지 않는데 그것은 황제가 검박해서가 아니라 몽고족들에게 주기 위해서이며 그들이 공물로 바치는 것은 인삼과 피혁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을 듣는다. (224-226면) 북경 한복판에서 몽고의 음악이 연주되고 (377면) 심지어는 황제가 몽고인을 사위로 삼으려고까지 하는 것이다. (252면)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청나라가 몽고족을 두려워하며 매우 조심한다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한 바 있다. 그러나 노가재는 그들이 조심하는 흔적을 보았으면서도 왜 그러는지는 몰랐다. 그는 또한 황제가 국사로 모시는 라마승을 보고도 “얼굴은 좁고 피부가 거칠며 사납고 독살스러운 기운이 면목에 나타나 있다. …… 그 기상을 보니 사람이나 죽이고 재물을 빼앗을 놈들에 불과하고 끝내 큰 뜻을 품고 있을 주체는 못되니 크게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sup>33)</sup>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청나라가 안고 있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청나라를 있는 대로 관찰만 할 뿐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해보려 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청나라에 대한 그의 관찰이 매우 상세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V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연행일기』는 노가재 김창업이 그의 형 김창집이 동지겸사은사로 청나라에 갈 때 타각으로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쓴 연행록이다. 그는 당시의

33) 『연행일기』 一一七면. 其面狹而皮急 猥毒之氣發於面目 …… 觀其氣像 不過殺人掠財而已 終非有大志者 不足爲憂也

일반적인 분위기인 반청의식이 강했다. 이것은 그의 여행 시집인 「연행훈지록」에 자라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연행일기』에는 「연행훈지록」의 대청 의식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즉 청의 중국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청 감정을 일정한 정도나마 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가재는 일개 타각이었으면서도 『연행일기』의 저술 태도는 매우 공식적이다. 이런 태도로 그는 중국을 관찰하고 역관들의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그가 본 당시의 중국을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의 관찰은 표면적이어서 중국을 보는 것은 피상적인 데에 머무르고 있다.

그가 본 중국은 좋은 황제와 관리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발전된 기계를 사용하여 풍요롭게 사는 태평한 나라였다. 그는 청나라의 매우 예민한 문제였던 북방 오랑캐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으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태평성대라는 생각이 이를 방해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노가재가 본 청의 문화, 조선과의 문화교류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넘긴다.

- 핵심어: 『연행일기』, 반청감정, 반청의식, 역관, 난두, 오랑캐

<Abstract>

Study on 'Beijing journal by Nogajae' by Kim Chang-Up

Kim, Sang-Jo

Beijing Journal by Nogajae is a traveler's journal written by Nogajae Kim Chan-Up after his visit to Beijing accompanying his elder brother Kim Chang-Jip as Ta-gag or someone who was in charge of taking care of all the luggage. He had strong anti-Ching sentiment which was widely spread at that time. It is reflected in his traveler's collection of poems 'Traveler's journal about the love between brothers'. However he shows different aspects in Beijing Journal than the anti-Ching sentiment in 'Traveler's journal about the love between brothers'. He admitted the ruling of Ching over China and relieved the anti-Ching sentiment.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only staff member but his writing attitude was very official. He observed China and sharp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ranslators of the government with that attitude. He observed China with calm view and wrote as it was. However his observation is nothing more than superficial.

From his point of view China was and peaceful country governed by a great emperor and government officials and it was a rich thanks to the advanced machines. He thought the sensitive issue of North Barbarians was strange but failed to grasp the meaning of it. Was he distracted by his prejudice that China was peaceful and rich. The paper doesn't cover how Nogajae viewed the culture of Ching and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g and Joseon dynasty. These issues will be dealt next time.

- Key Words: Beijing journal, anti-Ching sentiment, translators of the government, barbarians